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

[1~2] 다음은 '게임섀다운제 도입'에 대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찬성 1: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게임섀다운제는 아시다시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면증 등 신체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아가 우울 증세까지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게임섀다운제는 일정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온라인 게임뿐인가요?

찬성 1: 아닙니다.

반대 2: 그렇다면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을 차단한다고 해도 청소년이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찬성 1: 글쎄, 그렇기는 하죠.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게임섀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인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게임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텔레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여가 활동입니다. 게임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청소년 자신이 아닌 국가에 위임되는 게임섀다운제는 국가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청소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1: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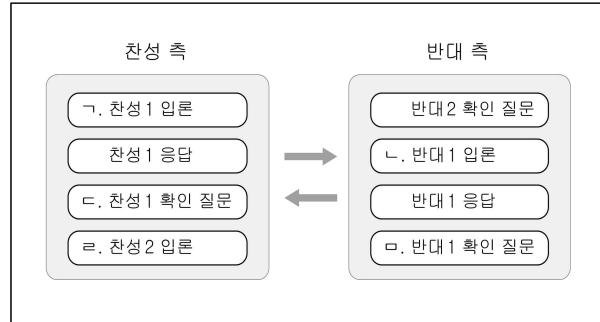
반대 1: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찬성 2: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유엔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래방, 멀티방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제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인에 비해 온라인 게임은 폭력성과 선정성의 문제가 많으므로 게임섀다운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 1: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폭력성과 선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국내 게임보다는 외국 게임의 접속 차단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섀다운제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행되는 게임섀다운제가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 (후략)

1. 위 토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 게임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심각함을 들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도가 가진 부정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 ㄷ: 청소년의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ㄹ: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시행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음을 들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ㄹ: 제도가 국내 게임에만 적용되는 점을 들어 그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소년 수면 실태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75.6%가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과 후 학습(40.6%)이며, 그 다음 요인은 과도한 학교 수업(26.7%)으로 조사되었다.

- 찬성 1의 입론에 대한 반론 제기 자료로 활용한다.
- 반대 1의 입론에 대한 반론 제기 자료로 활용한다.
- 찬성 1의 확인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로 활용한다.
- 찬성 2의 입론에 대한 반론 제기 자료로 활용한다.
- 반대 1의 확인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로 활용한다.

[3~4] 다음은 강연의 한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방청객이 없는데도 사람들 웃음소리가 나오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는 '사회적 증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뺑컨처럼요. 뺑컨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천적이 두려워 머뭇거리다가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면 다른 뺑컨들도 따라 뛰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거 이론을 뺑컨 효과라고도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펴며) 그러면 광고에서 예를 찾아보죠. 제품에 관한 정보보다 제품을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 주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수가 쓰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행동을 따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회적 증거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3. 다음은 위 강연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실제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강연 목적 설정

'사회적 증거' 이론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①

청자 분석

고교 2학년 학생임을 감안하면,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화제의 중심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②

강연의 전개

- 도입부: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주의를 집중시킨다.-----③

- 전개부: 사례를 들어 화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정리부: 강연자의 신념을 내세우며 이론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④

고려해야 할 점

연설 중간에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⑤

4. 듣기 과정의 중점 사항을 고려할 때, 청중의 듣기 수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실적 듣기 - 정보 확인하기	① "인간과 뺑컨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군."
추론적 듣기 - 발화자의 의도 추리하기	② "코미디 프로그램의 웃음 소리는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겠군."
	③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도 사회적 증거 이론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군."
비판적 듣기 - 의사소통의 내용 평가하기	④ "다수의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간파하고 있군."
	⑤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군."

5. 다음 대화를 참조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빠: (딸의 표정을 보며) 우리 공주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은희: 민지 때문에.....

아빠: 민지라면 너와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은희: 네, 맞아요.

아빠: 근데 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은희: 도서관 부장인 민지가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어요.

아빠: 발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나 보구나.

은희: 아뇨. 그 학생들을 고려하여 발표 준비는 많이 했어요.

아빠: 그런데 왜 발표를 잘 못했어?

은희: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평소 아는 친구들 앞에서는 얘기를 잘 하는데.....

아빠: 음, 민지가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고 했지?

은희: 네, 맞아요.

아빠: 그렇다면 네가 민지에게 ㉠ 라고 위로해 주면 되겠구나.

- 청중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말한다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 거야.
-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다면 청중의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 낮선 청중들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정 관리만 잘한다면 괜찮아질 거야.
- 청중과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자세를 지닌다면 해결되는 문제야.
- 낮선 말하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6~7] <보기 1>은 '해민'의 작문 수행 과정이고, <보기 2>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6번과 7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 '해민'의 작문 수행 과정 】

○ 3월 2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글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해. 우선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겠어.

○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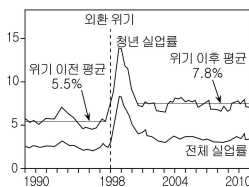
자료를 조사해 보니 청년 실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자료도 더 찾아보고 글을 써야겠어.

먼저 청년층의 일자리 선호 경향을 파악하는 게 좋겠지? 또한 청년 창업을 다룬 외국의 사례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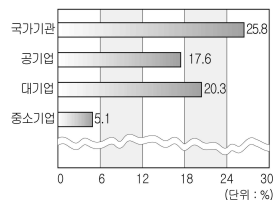
—<보기 2>—

1. 통계 자료

(가) 청년 실업률 추이



(나) 청년층의 선호 일자리



(다)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유형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공공 고용 서비스	18	18	2
직업 훈련 및 인턴 제도	18	28	31
고용주에 대한 혜택	6	7	2
직접일자리 창출	4	3	4
창업 지원	-	8	4

(숫자는 정책시행사업 수)

2. 인터뷰 자료

(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 구직자들은 대졸 출신들이 많고 직장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중소기업에는 잘 지원하지 않는 편입니다.”

— A 중소기업 사장

(나) “다른 나라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처음에는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사례가 많아요.”

— 창업 관련 전문가

6. <보기 1>을 바탕으로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계획

I. 논거 자료	ㄱ. 청년 실업률과 관련된 통계 자료 ① ㄴ.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을 보여 주는 연구 자료 ㄷ. 외국의 청년 실업 해소 방안 또는 사례 자료 ②
II. 내용 선정 및 쓰기 전략	ㄱ. 청년 실업률의 실태를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한다. ㄴ. 청년 실업을 유발하는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③ ㄷ. 청년 구직자들이 특정 일자리만 고집하지 않도록 기대 수준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ㄹ. 청년 창업의 장애 요소를 분석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⑤

7. <보기 2>의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1-(가)에서는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② 1-(나)는 1-(다)와 달리 변화의 추이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야 한다.
- ③ 1-(나)와 2-(가)를 해석하면 청년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 ④ 1-(다)의 유형별 수치를 비교하면 직접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원인을 드러낼 수 있다.
- ⑤ 1-(다)와 2-(나)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해 보자.



[그림 1]



[그림 2]



[그림 3]

과제 수행 전략

오늘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림은 모두 세 개였는데, 세 그림의 의미를 상호 연결하여 표현하되, 특히 [그림 3]의 의미를 부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선 글의 제목부터 정하고 관련 내용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로 하였다. 글감을 찾고 난 뒤에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골라 글을 쓰기로 했다. 실패와 문제점을 먼저 소개하고, 끝에는 독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생의 글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통계청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 가구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노년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분들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하다. 이분들에게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스무 살 시절이 있었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장년 시절도 있었다. ㉢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힘이였다.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외롭게 지내고 있다. ㉣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내일의 당신이기 때문이다. ㉤ 지금부터라도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 한다.

8. '과제 수행 전략'을 참조하여 학생의 글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체를 통해 찾은 자료를 논거로 활용하였다.
- ② 글의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을 설정하였다.
- ③ 글의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 ④ 그림에 담긴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 ⑤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독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였다.

9.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홀로 살아가는'을 삭제한다.
- ② ㉡은 앞 문장과 관계를 고려하여 '하지만'으로 바꾼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모두가' 뒤에 '관심을'을 추가한다.

1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글의 서론 부분이다. <보기>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의의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그동안 학계와 관련 단체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결과이다. 우리도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을 자주 들어 왔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유네스코에서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날을 국경일로만 지정하고 공휴일에서는 제외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글날 제정의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글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고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 기>

【서론의 평가 요소】

- ㄱ. 논의의 배경을 밝히고 있는가?
- ㄴ. 중심 화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ㄷ.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가?
- ㄹ. 본론에 서술할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가?
- ㅁ. 글을 쓰는 목적이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 ① ㄱ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된 배경을 밝혔다.
- ② ㄴ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글임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 ③ ㄷ : 유네스코의 사례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했다.
- ④ ㄹ : 본론에서 서술할 내용과 순서를 언급하였다.
- ⑤ ㅁ :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서술하였다.

11.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한 탐구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음

- ㄱ.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ㄴ.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II.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 ㄱ.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
- ㄴ. 어간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명사, 부사, 조사)로 바뀐 것.

- ① '길-'에 '-이'가 붙은 '길이'는 I의 ㄱ에 해당하겠군.
- ② '익-'에 '-히'가 붙은 '익히'는 I의 ㄴ에 해당하겠군.
- ③ '알-'에 '-ㅁ'이 붙은 '알'은 II의 ㄱ에 해당하겠군.
- ④ '찾-'에 '-우'가 붙은 '자주'는 II의 ㄴ에 해당하겠군.
- ⑤ '불-'에 '-어'가 붙은 '부터'는 II의 ㄴ에 해당하겠군.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하나의 단어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다의어'라고 한다.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뉜다. 중심적 의미끼리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교가) 넓다 ↔ (도로가) 좁다	중심 ↔ 중심
(학교가) 넓다 ↔ (시야가) 좁다	중심 ↔ 주변
(마음이) 넓다 ↔ (시야가) 좁다	주변 ↔ 주변

* ↔: 반의 관계가 성립함.

* ↔: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① 결심이 서다 ————— 요직에 앉다
 ② 차렷 자세로 서다 ————— 잠자리가 장대에 앉다
 ③ 칼날이 서다 ————— 책상에 먼지가 앉다
 ④ 전봇대가 서다 ————— 의자에 앉다
 ⑤ 일렬로 서다 ————— 방식을 깔고 앉다

13 다음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피동문의 부사어와 주어로 바꾸고, 능동문의 서술어에 알맞은 피동 접사나 '-어지다'를 붙여 피동문의 서술어로 만든다. 피동문을 쓸 때에는 지나친 피동 표현(이중 피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보 기> —

ㄱ.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다.
 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ㄷ. 그의 오해가 동생에 의해 풀리다.

- ① ㄱ의 '휩쓸리다'는 '휩쓸다'의 어근에 피동 접사가 붙은 경우이다.
 ②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폭풍에'를 목적어로 만들어야 한다.
 ③ ㄴ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가 '경찰'이 된다.
 ④ ㄴ의 '잡히다'를 '잡혀지다'로 바꾸면 지나친 피동 표현이 된다.
 ⑤ ㄷ의 '풀리다' 외에 '풀다'의 어간에 '-어지다'를 붙여도 피동문이 된다.

14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더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우리말은 어근끼리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도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술방울'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술'과 '방울'이라는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고, '푹고추'는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푹-'과 어근인 '고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파생어라 부른다.

- ① '맨주먹'은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단어이군.
 ② '날짐승'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군.
 ③ '군소리'와 '군밤'은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파생어이군.
 ④ '돌다리'와 '집안'은 어근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므로 합성어이군.
 ⑤ '감나무'는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이고, '나무꾼'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군.

15 <보기>는 표준 발음에 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ㄴ, ㄷ, ㅌ, ㄷ',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ㄱ'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ㄷ,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이제야 동녘에서[동녀게서] 해가 떠오른다.
 ② 그는 꽃밭[꽃뽕]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③ 비가 그치고 난 후 날씨가 맑게[말게] 개었다.
 ④ 그녀는 하얀 눈을 맑고[맑꼬] 앞으로 나아갔다.
 ⑤ 아버지의 외곶[외곶] 인생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16. <보기>를 활용하여 ‘중세(15세기) 국어의 특징’을 학습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중에서

이런 전초로 어린 百百姓성이 니르고져 흠 배 이셔도
ㅁ춤 제 ㅅ들 시러 퍼디 문흠 노미 하니라

[현대어 풀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중에서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뭇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구분	ㄱ	ㄴ	학습의 결과	
어휘	어린, 하니라, ...	여름, 하느니	어휘의 의미가 오늘날과 다름	 ①
	전초	뭇썩	오늘날 쓰이지 않는 어휘가 사용됨	 ②
문자	ㅁ, ...	ㅁ (아래 아)	오늘날 쓰이지 않는 문자가 사용됨	 ③
문법	배	불휘	오늘날과 달리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음	 ④
표기	ㅅ들, 노미, ...	기픈, 브르매	소리나는 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적음	 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페라는 이른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고상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오페라 앞에 ‘거지’라든가 ‘서 푼짜리’ 같은 단어를 붙인 ‘거지 오페라’, ‘서 푼짜리 오페라’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제목을 역지로 조합해 놓은 의도는 무엇일까?

영국 작가 존 게이는 당시 런던 오페라 무대를 점령했던 이탈리아 오페라에 반기를 들고, 1782년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성격의 거지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일반인의 삶과 거리가 먼 신화나 왕, 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데다가 영국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 어로 불린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등장인물의 신분을 과감히 낮추고 음악 형식도 당시의 민요와 유행가를 결하여 사회의 부패상을 통렬하게 풍자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항하는 서민 오페라로 런던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28년에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는 작곡가 쿠르트 바일과 손잡고 거지 오페라를 변안한 서 푼짜리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당시 사회를 비판한다. 이 극은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통해 위정자들의 부패와 위선을 그려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브레히트는 감정이입과 동일시에 근거를 둔 종래의 연극에 반기를 들고 낯선 기법의 서사극을 만들었다. 등장인물이 극에서 빠져나와 갑자기 해설자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지 않고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존 게이와 브레히트는 종전의 극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의 극을 지향했다. 제목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로 조합하고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관점을 뒤집어 보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이면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1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이탈리아 오페라의 발생 과정
- ② 서 푼짜리 오페라에 담겨 있는 내용
- ③ 존 게이와 브레히트가 추구한 극의 경향
- ④ 거지 오페라에 대한 당시 관객들의 호응
- ⑤ 거지 오페라로 제목을 붙인 작가의 의도

18. ‘브레히트’가 <보기>의 입장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만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통한 관객과 극중 인물과의 감정 교류와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 타인의 경험과 감정,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극에 이입하고 몰두함으로써 쌓여 있던 감정을 분출하며 느끼는, 이른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극과 거리를 두고 보아야 오히려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 ② 관객이 몰입하게 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③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야 관객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요?
- ④ 낯선 기법을 쓰면 관객들이 극중 인물과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 ⑤ 동일시를 통해야만 풍자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활동 주체들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입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산업입지론’인데, 고전적인 산업입지 이론으로는 ‘최소비용입지론’과 ‘최대수요입지론’이 있다.

① 최소비용입지론은 산업의 입지에 관계없이 수요는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다른 비용들이 동일하다면 운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되며, 최소 운송비 지점을 바탕으로 다른 비용 요소들을 고려한다. 운송비는 원료 등 생산 투입 요소를 공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운송비’와 생산한 제품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제품 운송비’로 구성된다.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원료지수(MI)를 도입하여 사용된 원료의 무게와 생산된 제품의 무게를 따진다. 그 결과 원료 산지와 시장 중 어느 쪽으로 가까이 입지할 때 운송비가 유리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산업의 입지를 판단한다.

원료지수(MI) = 사용된 원료의 무게 ÷ 생산된 제품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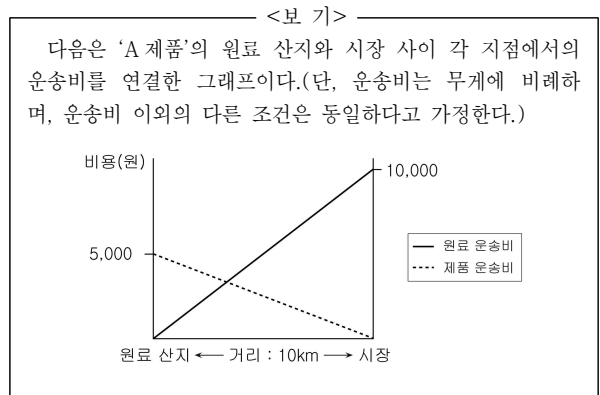
MI > 1일 때에는 시장까지 운송해야 하는 제품의 무게에 비해 사용되는 원료의 무게가 더 큰 경우로, 공정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할수록 운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원료 지향적 입지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MI < 1인 경우는 산지에서 운송해 온 재료 외에 생산 공정 과정에서 재료가 더해져 제품의 무게가 늘어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제품 운송비의 부담이 더 크므로 시장에 가까이 입지할수록 운송비 부담이 줄게 되어 시장 지향적인 입지 선택을 하게 된다. MI = 1인 경우는 원료 산지와 시장 사이 어느 지점에 입지하든 운송비에 차이는 없게 된다.

최대수요입지론은 산업입지와 상관없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를 선정한다. 최초로 입지를 선정하는 업체는 시장의 어디든 입지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중심에 입지한다. 그 다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경쟁 업체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장을 뺏기게 되므로 경쟁 업체가 있더라도 가능한 중심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두 경쟁자는 서로 적절히 떨어져 입지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려고 한다.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수요는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② ‘최소비용입지론’에서는 원료지수가 1인 경우에는 입지 지점에 따른 운송비 차이는 없다고 본다.
- ③ ‘최대수요입지론’은 산업 입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④ ‘최대수요입지론’에서는 경쟁 업체와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수요가 극대화되는 입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 ⑤ ‘최대수요입지론’에서는 최초로 입지하는 업체는 시장의 어디든 입지할 수 있지만 시장의 중심에 입지한다고 본다.

20. ①의 관점에서, <보기>의 ‘A 제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MI 지수를 계산해 보면 1보다 크다.
- ②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보다 크다.
- ③ 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무게가 줄어든다.
- ④ 그래프의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 ⑤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할수록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1. 밑글을 읽고 독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수요는 가격보다 업체의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었군.
- ② 업체끼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
- ③ 경제 활동 주체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군.
- ④ 시장의 경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입지 선정이 힘들겠군.
- ⑤ 여러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적의 입지 선택을 위해서는 거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공포가 종교적 세계관을 낳았지만, 계몽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립된 ① 근대 계몽주의는 중세를 지배했던 신(神)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계몽주의의 합리적 사고는 자연과학의 성립으로 이어졌으며, 우주와 자연에서 신비로운 요소를 걷어낸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명의 이면에는 환경 파괴와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와 같은 근대화의 병폐가 숨어 있었다.

이에 대해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대표되는 비판이론가들은 계몽주의의 이성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의 효율성만 중시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의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 규정하며 그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성에 대한 과신이 자연과 인간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자신이 속한 프랑크푸르트학파를 계승하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도 계몽주의의 일방적인 이성주의는 반대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앞선 시대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이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고 편향되게 이해한 것에 반대하고, 이성의 힘을 긍정하며 ‘의사소통적 이성’을 제안하였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진정한 사회의 진보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하여 자율적 합의를 통해 장애 요소를 공동으로 제거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적 이성이야말로 도구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적 이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여기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전제한다.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갈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 참여자들이 일정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담화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담론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듯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이론의 핵심을 유추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23. ㉠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적 사유를 통해 인간 해방은 가능하다.
- ②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효율성은 중요하다.
- ③ 이성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근대화의 병폐를 야기한다.
- ④ 자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 ⑤ 우주의 원리는 신의 섭리가 아닌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24. <보기>에 대한 ‘하버마스’의 반응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은? [3점]

<보 기>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대중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제약 없이 토론함으로써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뛰어난 지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집단지성’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익명성의 속성으로 인해 대중들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경우에는 현실의 규범들로부터 쉽게 이탈할 우려도 있다.

- 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SNS로 자유롭게 소통한다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집단지성은 의사소통적 이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 ③ 디지털 민주주의는 대화 참여자들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 ④ 만약 익명성에 기대어 의사소통의 주체들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윤리적인 담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인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한 후, 그는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동적인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우주가 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그의 이론에 삽입했다.

그러나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 아인슈타인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요소는 의미가 없어졌다. 허블은 자신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블의 연구 이후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하는 우주론들이 등장했다.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이론은 **가모프와 앨퍼**가 제안한 대폭발 이론이다. 그들은 150억 년 전과 200억 년 전 사이의 어느 시점에 한 점에 모여 있던 질량과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폭발 이론이 정말로 옳다면 우주배경복사*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주배경복사는 1960년대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대폭발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폭발 이론이 입증되면서 과학자들은 우주가 과거에 어떤

속도로 팽창했고 앞으로 어떻게 팽창해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주는 힘은 중력이다. 중력이란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에 때문에 우주의 팽창을 방해한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될까? ㉠ 큰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는 급격히 줄어들고 언젠가는 멈추었다가 다시 수축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질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우주의 질량은 우주의 팽창을 저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최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 물질이 많으면 우주 전체의 질량이 늘어나 팽창이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발견으로 우주의 팽창이 느려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슈미트와 크리슈너는 초신성을 관측해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 공간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 암흑 에너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 우주배경복사: 우주 탄생 후 최초로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진 빛.

25.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주 연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 ②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와 그 의미
- ③ 우주 팽창에 관한 이론의 전개 양상
- ④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
- ⑤ 우주 팽창론과 수학 이론의 학문적 교류

2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의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면서 이론을 정립해 가지만 개인적 신념이 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론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과학자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되기도 한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정립된 이론은 후대 과학자들의 실증적인 방법에 의해 입증되기도 하고 수정되거나 버려지기도 한다.

- ① ‘아인슈타인’은 연구 결과보다 개인적 신념에 더 의지하여 이론을 정립했다.
- ② ‘허블’의 실증적인 방법에 의하여 우주 팽창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무의미해졌다.
- ③ ‘가모프’와 ‘앨퍼’는 ‘허블’이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를 이론으로 정립했다.
- ④ ‘펜지어스’와 ‘윌슨’은 ‘가모프’와 ‘앨퍼’의 이론을 입증하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 ⑤ ‘슈미트’와 ‘크리슈너’는 초신성 관측을 통해 ‘가모프’와 ‘앨퍼’의 이론을 수정했다.

27. ㉠과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달리는 차가 갑자기 멈추면 서 있는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 ② 부메랑을 던지면 멀어졌던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 ③ 고여 있는 물 위에서 종이배를 밀면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
- ④ 공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 ⑤ 바람이 가득 든 풍선의 입구를 막았다가 놓으면 풍선은 빠져나가는 공기의 방향과 반대로 날아간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은 기존의 물질을 파괴한다.
- ② ㉡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감소시키고, ㉢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증가시키고, ㉢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감소시킨다.
- ④ ㉡은 별과 별 사이의 중력을 감소시키고, ㉢은 별과 별 사이의 중력을 증가시킨다.
- ⑤ ㉡은 우주 전체를 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고, ㉢은 우주 전체를 동적인 상태로 변화시킨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물론 글쓰기 전략도 들어 있다.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글쓰기 전략이 달라진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정보를 쉽고 명료하게 조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설득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짜임을 취하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친다.

독자 입장에서는 글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추리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글의 구조를 고려한 독서의 방법에는 ㉠ 내용 요약하기와 ㉡ 조직자 활용하기 방법이 있다. 내용 요약하기는 문단의 중심 화제를 한 두 문장 또는 구절로 표현해 보는 일이다. 조직자란 내용을 조직하는 단위들이다. 예컨대 ‘주장-반대 주장 / 주장-근거 / 원인-결과 / 문제-해결’ 등으로 짜여 있는 글에서 각각이 조직자가 된다. 이를 잘 찾아내면 글의 요점을 파악하기 쉽다.

SQ3R* 방법을 수정, 활용해서 글을 읽는 방법도 있다. 먼저 ㉢ 제목 또는 소재 활용하기다. 이는 제목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해 본 다음,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어가며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질문하기-답 찾기도 유용한 방법이다. 중심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고 답을 찾기 위해 글을 자세히 읽는다. 끝으로 글을 다시 읽고 ㉤ 전체의 중심 내용을 확인한 뒤 암송한다.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독서의 방법으로 글을 읽을 뿐 아니라 글의 제재에 따라 서로 다른 배경 지식을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글쓴이의 주장이나 논지 전개의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야 한다.

(나) 연암 박지원은 「소단적치인(驛壇赤轍引)」에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장수가 병법(兵法)을 훌륭히 구사하는 것에 빗대어 논한 바 있다. 글자는 비유컨대 병사이고, 뜻은 비유하면 장수라고 했다. 글자를 묶어 구절을, 구절을 엮어 문장을 이루는 것은 마치 병사들이 대오를 갖추어 행진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또한 제목이라는 것은 마치 적국(敵國)과 같아서, 성벽을 먼저 기어 올라 적들을 사로잡는 것과 같이 제목의 의미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옛날의 책이나 고사에서 인용하는 것은 싸움터에서 탄탄하게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며, 같은 의미라도 말을 잘 다듬어 표현하는 것은 나팔과 북으로써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 SQ3R: '훑어보기-질문하기-자세히 읽기-새기기-다시 보기'의 독서 전략.

29. (가)의 글쓴이가 (나)의 글쓰기 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독서의 요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조직한 세부 정보를 메모하며 읽는다.
- ② 글쓴이가 쓴 내용과 유사한 주제의 글을 찾아 읽는다.
- ③ 글쓴이의 전략을 고려하여 글의 짜임에 유의하며 읽는다.
- ④ 독자가 이미 아는 지식보다 알고 싶은 지식을 찾아 읽는다.
- ⑤ 글쓴이가 가진 생각의 타당성을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읽는다.

30. 다음 자료로 '영희'는 읽기 과정을 수행했다. ㉠~㉣의 방법으로 수행한 독서 활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사회 변동과 문화 변동

근대화는 전통 사회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전통 사회의 해체 과정이 빨라진 만큼 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 사회 문화의 해체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전통 문화의 해체는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전통적인 문화가 당면하게 되는 적합성(適合性)의 위기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생활양식으로 유지되었던 전통 사회의 문화가 사회 구조 변화의 속도에 맞먹을 정도로 신속하게 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한다는 것은 과거의 전통 문화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변화된 사회에 적합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 1~2문단은 '근대화에 따른 전통 문화의 위기와 그 원인'을, 3문단은 '문화적 전통의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② ㉡: 문제의 원인에 관해 기존의 주장과 상이한 관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장-반대 주장'의 조직자를 갖고 있다.
- ③ ㉢: 제목을 보니 근대화에 따른 문화의 변동에 대해 다루겠군.
- ④ ㉣: '적합성의 위기'란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전통 문화가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군.
- ⑤ ㉤: 결국 전통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니 이를 잘 확인해야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원에 사는 최척과 옥영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하지만, 최척은 전쟁 중 의병으로 징집되어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자 옥영의 어머니는 고을의 부자 양생과 옥영을 억지로 혼인시키고자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영**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최생의 거취는 의병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생이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생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언약을 저버리시니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 의지를 꺾으려 하신다면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같은 어머니께서도 몰라주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아아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심씨는 딸의 말을 용납하지 않고 더 들을 생각도 없어 곧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에 심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문득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베개머리까지 세차게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나 딸이 자던 자리를 어루만져 보니 딸이 그 자리에 없었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히 찾아보니, 옥영이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고 창살 아래 엎드려 있었다. 손발이 모두 차고 숨소리가 점차 희미해졌으며, 호호만 목구멍 속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심씨는 황망히 목에 매인 수건을 풀고 옥영을 끌어안아 일으켰다. 이때 **춘생**이 등불을 밝히고 와서 물을 몇 모금 입에 흘려 넣자, 옥영이 겨우 입으로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옥영이 깨어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너나없이 달려와서 옥영을 구원하였으며, 이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양씨 집안과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때 **최숙**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양씨 집안과의 혼사 문제 등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다 알려 주었다. **최척**은 바야흐로 옥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병과 그리움이 두 배나 더 심해졌다. 의병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최척을 진중(陣中)에서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최척은 며칠 동안 몸을 조리하고 난 뒤에 점차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1월 초하룻날 정진사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아름다운 두 남녀가 서로 합치게 되니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략)

옥영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것을 아는지라, 처연히 최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인간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변고가 있고, 좋은 일은 귀신이 시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근심스러워 마음이 절로 슬퍼지곤 합니다.”

최척이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여 말했다.

“곁었다가 퍼지고 가득 찼다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천도의 항상된 이치요, 길흉과 회한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겪을 일일 것이오. 만약 불행히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슬픈 처지를 한탄하면서 몸과 마음을 게을리 할 수가 있겠소? 부질없는 근심과 고민으로 즐거운 마음을 해칠 필요는 없소.”

이 이후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더욱 돈독해졌으며, 서로를 지음(知音)으로 자처하면서 하루도 떨어져 생활하는 일이 없었다.

정유년 8월에 왜구가 남원을 함락하자 사람들이 모두 피난가 숨었으며, 최척의 가족들도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을 갔다. 최척은 옥영에게 남장(男裝)을 하게 했는데, 못사람에 뒤섞여어도 보는 사람마다 옥영이 여자인 줄을 몰랐다.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거의 굶주리게 되었다. 최척은 장정 서너 사람과 함께 양식도 구하고 왜적의 형세도 살펴볼 겸 산에서 내려왔다. 최척 일행은 구례에 이르러 갑자기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바위 골짜기에 몸을 숨겨 붙잡히는 것을 겨우 면했다.

이날 왜적들은 연곡사로 쳐들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왜적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연곡사로 들어가 보니, 시체가 절에 가득히 쌓여 있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숲 속에서 신음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최척이 달려가 찾아보니, 노인 몇 사람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최척을 보자 통곡하며 말했다.

“적병이 산에 들어와서 삼 일 동안 재물을 약탈하고 인민들을 베어 죽였으며,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두 끌고 어제 겨우 섬진강으로 물러갔네. 가족들을 찾고 싶으면 물가에 가서 물어보게나.”

최척은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한 뒤, 즉시 섬진강으로 달려갔다.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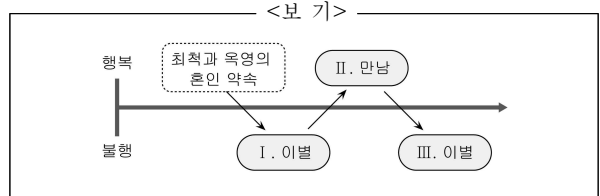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선악의 대립 양상을 중심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삶을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그려냄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3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최척’은 인간의 삶에 즐거움과 슬픔이 같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② ‘최숙’은 의병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옥영’과 ‘최척’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심씨’는 혼사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 ④ ‘옥영’은 어머니와 타협하여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한다.
- ⑤ ‘춘생’은 ‘옥영’의 행동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였다.

33. 윗글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에서 II로의 전개는 주인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 ② I과 III은 전쟁으로 인해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이다.
- ③ I과 III에서 주인공은 주변 인물에게서 정보를 전달받는다.
- ④ II에 나타난 우려가 III에서 주인공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 ⑤ II에서 주인공의 돈독해진 애정은 III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계절(季節)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追憶)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小學校)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詩人)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北間島)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을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은, 밤을 새워 우는 별에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

(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한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라미 뚜르르 보내는 타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때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나희덕, 「귀뚜라미」 -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대조의 방법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35.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흙'과 [B]의 '매미 때'는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
- ② [A]의 '언덕'과 [B]의 '계단'은 극복해야 할 고난을 상징한다.
- ③ [A]의 '봄'과 [B]의 '시절'은 바람직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
- ④ [A]의 '이름자'는 운명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B]의 '노래'는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 ⑤ [A]의 '우는'은 부끄러움을 환기하고, [B]의 '울음'은 누군가에 게 감동을 주고 싶은 소망을 의미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예술'의 문학 노트】

윤동주(1917~1945) 시 세계의 특징

-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과 정서
- 반성적인 매개체를 사용한 자아 성찰
- 현실 극복 의지와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
-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인의 소명 의식

- ① 화자는 별을 보며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
- ② 화자는 별을 매개로 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있어.
- ③ 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가 투영되어 있군.
- ④ 가슴에 새겨지는 별에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군.
- ⑤ 멀리 있는 대상을 생각하며 별을 헤는 행위에는 애뜻함이 묻어나는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사를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실상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막상 닥치고 본즉, 입에 풀칠을 하는 일처럼 어려운 문제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반평생을 넘어 불혹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당신이 의지해 온 것이라곤 오직 몇 가지의 땅땸기밖엔 없었다. 흙은 그래도 ㉠ 정직한 상대였다. 못지않게 정직한 아버지의 손을 거의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 놓인 상대는 결코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정직한 만큼 아버지는 무능했다.

그만하면 가진 돈도 바닥날 때가 되었을 법하다고 느낄 무렵, 아버지는 몇 가지 도구들을 떠메고 들어왔다. 하나는 풀빵을 구워 내는 빵틀이었고, 다른 하나는 냉자 항아리였다. 뒤엎것은 내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아온 물건이었지만, 앞의 빵틀은 난생처음 대해 보는 도구였다. 그것은 모두 스물 네 개의 구멍이 가로세로 질서정연하게 파인 무쇠판이었다.

혼한 냉수 한 사발도 공짜가 없는 게 도시의 삶이었다. 제자리에서 잠시 돌아누워도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곳이다. 무위도식을 하며 산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터득한 지식이란 도시생활의 그 ㉡ 냉엄한 질서였다. 어쨌건 이 일은 아버지로서 ㉢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임이 분명했다.

무슨 요술단지라도 구경하듯 신기해 하는 식구들을 둘러보며 그러나 아버지는 호기 있게 말했다.

“자, 우리도 내일부터는 길거리로 나서는 거다. 그래 가지고 이놈의 빵틀로 마구 돈을 찍어내는 거야. 암!”

아버지의 그 우직한 낙관론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못지않게 우리의 기대 또한 컸다.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설레게 소망했다. 그것이 단순한 빵틀이기를 넘어서 한꺼번에 ㉣ 스물네 장의 지폐를 찍어내는 기계일 것을 …….

다음날 우리 가족은 한길로 진출했다. 번잡한 대로에 한 귀퉁이를 무단 점거한 우리는 사과 껍질 위에다 문제의 빵틀을 걸었다. 그러고는 탄불을 피우고, 밀가루 반죽과, 팔소(앙꼬)를 내왔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흙을 만져 오던 손은 어설피고 투박했다. 아버지가 실수를 저지
를 때마다 우리는 키들거리며 웃어댔는데 결국 그 웃음이 씩스
럽고 거북한 감정을 많이 덜어주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첫 완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한낮이 되어서였다. 아버지가 조금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중의 한 개를 꺼내들었을 때, 우리는 때맞추어 도시의 하늘을
무겁게 휘저으며 울려 퍼지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것
이다.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풀빵을 하나씩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요모조모로 관찰했다. 막 깨어난 병아리처럼 귀엽고 샛노란 빛깔
이었다. 치자 물을 너무 들인 탓일 거라고, 어머니가 즉석에서
분석했다. 누나는 또 팔소가 바깥쪽으로 흘러나와 있는 것을 가리
키며 아무래도 반죽이 묽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옳아, 다음번엔 주의를 해야겠어. 자, 그럼 맛들을 보지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히 한 입씩
빵을 베어 물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마다 곱뽕히
맛을 음미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떤가, 맛이?”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선뜻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꿀 먹은 벙어리였다. 뜨겁고, 달착지근
하고, 그리고 뒷맛이 약간 쓴, 그러나 이 맛을 어떻게
평해야 옳을 것인가?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유의 음식
을 시식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뒷맛이 좀 쓴 것 같은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먼저 품평했다. 좀 난감한 표정
이었다.

“그래요. 뒷맛이 이상하게 써요.”

어머니가 뒤이어 말했고, 우리도 조심스레 동의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온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풀빵을 찾는 사람
은 없었다. 생업을 시작한 첫날 밤, 아버지는 팔리지 않은 풀빵을 가
득 들고 돌아온다. 이에 가족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야릇한 분위기였다. 조금은 허전하고, 또 조금은 거북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결코 짜증스럽거나 서글픈 기분은 아니
었다. 우리는 다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을 따름이
었다. 시선을 내리칸 채 우리는 말없이 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자, 먹자구. 밤도 깊고 하니 오늘 저녁밥은 이걸로 때워야지
뭐.”

만찬의 시작을 선언하듯 아버지가 말하고 풀빵 하나를
통째로 입에다 넣었다. 그러고는 유리잔을 집어 들며 또
말했다.

“서양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산다는데 우리라고 한두 끼
정도야 어쩔라구. 시골 구석에 백혀 있어 봐. 이런 재미가
어디 있나”

나는 풀빵을 하나 집어 아버지처럼 한입에 냉큼 밀어
넣었다. 그것은 식어서 차고 딱딱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먹어 뱉다. 미적지근한 냉차로 목을 연신 축여가면서.

비로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누나와 내가 해종일
찍어 낸 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던 지폐가 아니라 역시 풀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다. 어쩌면 앞
으로도 계속 지폐를 찍어 내는 일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만찬을 끝낸 우리 가족이 ㉔ 성냥개비들처럼 나란히 드러누웠을
때쯤엔 고단한 이웃들의 숨소리가 판자벽을 낭자하게 넘어왔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

3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사건을 다양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
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한 사실을 서술
하고 있다.

38. <보기>를 토대로 ㉑~㉔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난감 도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생계를 위해 시골
에서 도시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난감
도시」는 판자촌을 빙뚫 표현이자 차가운 도시의 단면을 암시
하는 제목이다.

- ① ㉑: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는 흙에 대한 생각의 표현이다.
- ② ㉒: 이주한 후에 깨닫게 된 도시의 속성을 말해준다.
- ③ ㉓: 여행을 바라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시도임을 말해준다.
- ④ ㉔: 경제적 여유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의 기대감이 담겨 있다.
- ⑤ ㉔: 좁은 방에서 가족들이 몸을 붙여 잠을 자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3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풀빵 맛을 본 후 눈치를 살피는 가족의 모습에는
암담한 앞날을 예감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
- ② [B]에서 아버지의 대사에는 거북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의도
가 엿보이지만, 그 안에는 착잡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에는 가족들이 각박한 현실과 가난한 삶을 가족으로
이겨내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에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무능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서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에는 아버지께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대를 가리지 말고 워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껌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게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
어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정월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하논대
누리 가운데 나곤 몸하 호을로 녀셔* / 아으 동동다리
<정월령>

오월 오일에 아으 수릿날 아침 약(藥)은
즈른 해를 장존(長存)하실 약이라 반잡노이다 /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유월 보로매 아으 별해* 버린 빗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좇니노이다 /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칠월 보로매 아으 백중(百種) 배(排)하야* 두고
님을 한테 녀가져 원(願)을 비잡노이다 /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시월에 아으 저미연* 바랏* 다호라
것거 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샏다 / 아으 동동다리
<시월령>

십일월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汗衫)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이를 두고 각각 녀셔 /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 녀셔: 살아가는구나.

* 별해: 벼랑에.

* 백중(百種) 배(排)하야: 백중날 음식을 차려.

* 저미연: 잘게 썬.

* 바랏: 보리수나무.

* 봉당자리: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흠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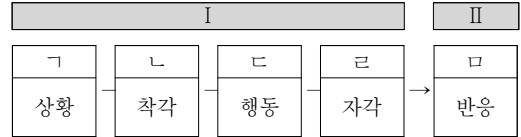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41.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작품 속에 화자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행동하는 모습(Ⅰ)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 보이는 모습(Ⅱ)이 그것이다.



- ① ㄱ: '님이~바라보니'는 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② ㄴ: '거머희뜩~님이로구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작각이다.
- ③ ㄷ: '버선을~건너가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 행동이다.
- ④ ㄹ: '정(情)옛말~속였구나'는 사랑하는 임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 ⑤ ㅁ: '모쳐라~뻔하였어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는 반응이다.

42.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령>의 '나릿뜨른'과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② <오월령>의 '반잡노이다'와 <칠월령>의 '비잡노이다'에는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
- ③ <유월령>의 '좇니노이다'와 <칠월령>의 '한테 녀가져'에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④ <유월령>의 '빗'과 <시월령>의 '바랏'은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다.
- ⑤ <시월령>의 '없으샏다'와 <십일월령>의 '각각 녀셔'에는 고독하게 지내는 삶이 드러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지민은 영화감독을 꿈꾸며 영화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영화반 수련회와 영화 제작을 추진하지만, 학교와 학생부장인 광도는 공부에 더 중요하며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우열반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설전을 벌인다. 같은 영화반원인 정연은 집안 사정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영화반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한다. 지민은 이러한 상황에 상처를 받는다.

S# 33. 영화반

어두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서는 지민, 자리에 털썩 앉는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시늬가 눈에 띈다. 천천히 시늬를 집어 들고 보는 지민 위로.

광도 (E.*) 그러게 평상시에 좀 잘하지. 그랬으면 왜 허락을 안 해 주겠어?

지민, 울적 치미는 감정으로 휴지통에 시늬를 던져 버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지민, 밖으로 나가려는데 안으로 정연과 마주친다. 순간, 둘 다 어색하게 굳는데.

정연 (답답하게) 여기 있었구나. 성제가 많이 걱정하던데.

지민 어.

정연 지민아!

지민 (보면)

정연 (답답하게) 영화 제작은 아직 결정 난 거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지민 (O.L.*) 끝났어.

정연 (놀라서 보면)?

지민 다 끝났다구. (자조적으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영화 제작이니 뭐니 설치구 다닌 내가 잘못이지 뭐.

정연 지민아, 니 기분 이해해. 하지만.

지민 (O.L.) 난 이해 못 해.

정연 (굳어서 보면)!!

지민 난 잡초가 아니니까. (나간다.)

한 대 맞은 듯 멍하게 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정연. 문득, 휴지통에 버려진 지민의 시늬를 본다.

(중략)

S# 57. 교정 일각

재하 영화반을 그만둬?

정연 (답답하게) 네.

재하 (장난스럽게) 이 녀석들이 요즘 그만두겠다는 말을 아주 쉽게 하네.

정연 죄송해요.

재하 (미소로) 공부 때문이니?

정연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영화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재하 결국, 공부 때문이네.

정연

재하 정연인 시나리오 작가가 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기억이 틀렸나?

정연 아뇨.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구요. (하는데)

재하 너 혹시 거인과 무지개에 관한 얘기를 아니?

정연 (보면)

재하 (다짜고짜) 옛날에 말야, 무지개를 찾아 떠난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막고 서 있던 거인을 만났지. 남자는 거인보고 비키라고 했고 거인은 비켜주지 않았어. 그게 시비가 돼서 남자는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했어.

S# 58. 지민의 방(밤)

[A]

공부를 하고 있는 지민, 초조한 듯 손톱을 잘근잘근 씹는다. 공부가 잘되지 않는 듯 머리를 흔들며 보는 지민.

재하 (E.)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남자는 무지개를 잊어버리고 거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돼 버렸어. 오랜 세월 싸운 끝에 결국 남자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땐 이미 남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무지개를 찾아 떠날 수가 없었어.

S# 59. 지민의 아파트 앞(밤)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정연 위로.

재하 (E.) 정연아, 니가 원하는 건 무지개니? 거인과의 싸움이니?

정연, 곰곰한 미소 지어 보이는데 아파트 안에서 나와 두리번 거리는 지민. 정연을 발견하고 다가온다.

지민 (의아해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정연 (미소로) 갑자기 니가 보고 싶어서.

지민 (뜻밖인 듯 본다.)

S# 60. 아파트 근처 공원(밤)

나란히 앉아 있는 정연과 지민.

정연 난, 언니처럼 되진 않겠다고 생각했었어.

지민 언니?

정연 응. 우리 언니 재수해서 지방 대학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엄만, 그게 참을 수 없으셨나 봐. 결국 언니 뜻과는 상관없이 자퇴하구 지금 삼수를 해 참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웃질 않아. 마치 죽은 사람 같아. 그런 언니 볼 때마다 언니처럼은 안 되겠다구,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보란 듯이 엄마한테 보여 주겠다구 다짐했었어.

지민 그랬구나

정연 거인과 싸우는 그 남자처럼 말야.

지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본다.)

정연 (희미한 미소로 보며) 지민이 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지민 어? 아, 아냐.

정연 나두 싸움에 많이 지쳤었나 봐 미안해.

지민 미안하긴 뭐가?

정연 (일어서며) 그만 가 봐야겠다. 들어가. (돌아서려는데)

지민 정연아.

정연 (보면)

지민 고마워.

정연 뭐가?

지민 (멋쩍은 미소로) 하마터면 나도 무지개를 잃어버릴 뻔했어.

정연 (미소로 본다.)

- 김지우, '둘꽃에게 희망을' 「학교 II」 -

* E.: Effect. 효과음.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

* O.L.: 오버랩(Over 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부드럽게 장면을 전환시키는 기법.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도’는 ‘지민’의 평소 행동을 나무라고 있다.
- ② ‘재하’는 ‘정연’의 입장을 생각하여 조언하고 있다.
- ③ 정연의 ‘언니’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④ ‘정연’은 어머니의 반대로 영화반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
- ⑤ ‘지민’과 ‘정연’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44.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는 탄광 노동자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11살 소년이다. 어느 날 **발레 수업**에 참여하게 된 빌리는 발레에 매료되어 **발레리노**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발레 수업은 중단된다. 발레를 포기할 수 없었던 빌리는 혼자만의 공연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우연히 빌리의 춤을 본다.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들을 지원해 준다. 이후 빌리는 여러 어려움을 딛고 로열발레단에 들어가게 되고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을 맡게 된다.

- ① ‘무지개’와 ‘발레리노’는 ‘남자’와 ‘빌리’에게 있어 소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다.
- ② ‘남자’와 ‘빌리’ 모두 처음에 정한 자신의 목표를 상황에 맞게 바꾼다.
- ③ ‘길’은 ‘발레 수업’과 달리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상징한다.
- ④ ‘거인’과 ‘아버지’는 끝까지 꿈의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⑤ ‘거인과 싸움’에서 ‘남자’는 소극적으로, ‘아버지의 반대’에 ‘빌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5. 윗글을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한다. 제작 회의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 33: ‘지민’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휴지통에 버려진 시뮬을 클로즈업해서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S# 57: ‘정연’의 단호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표정과 냉정한 말투로 연기하면 더 좋겠어.
- ③ S# 58: 인물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두운 조명과 적절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④ S# 59: ‘정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도록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 ⑤ S# 60: 밤이지만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공원을 꾸미는 것이 좋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